

중산층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분석

—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사례 —

최 효 미*

I. 서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중산층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통합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왔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중산층이 감소하는 경향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남준우(2007)는 1998년에 42.3%이던 중산층(중위소득의 75~150%)의 비중이 2004년에는 40.7%로 감소하였으며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유경준(2008)에 의하면 소득불평등도의 확대에 따라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의 비중이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58.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존의 중산층에 관한 논의는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단순히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된 소득계층의 변화만으로 중산층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각각의 개인들은 소득 수준¹⁾만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지하지는 않을 뿐더러, 사회적 통합에는 객관적인 소득 수준뿐 아니라 다분히 주관적인 사회계층 소속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객관적 지표에 따른 중위소득계층과 주관적 판단에 따른 중간층의 실태와 차이에 대해 살펴본 후, 중산층의 정의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은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 사이의 괴리는 얼마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책임연구원(chm@kli.re.kr).

1) 소득에는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등이 포함되므로, 어느 정도 자산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차이가 소득계층 구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나 되는지 알아본다. 이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해 봄으로써 기존의 객관적 지표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중산층의 정의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크게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적 지수를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 분류와 귀속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의 정치사회적 변수를 포함하는 주관적 분류로 나뉜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며 연구의 성격이나 학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계층에 속한 집단을 중산층이라 정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소득계층에 따른 객관적 분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중위값을 기준으로 몇 %에 해당하는 계층이 중산층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 이견이 존재하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본고는 객관적 지표로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하는 집단을 객관적 중산층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²⁾ 이때 사용되는 가구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것이며, 이후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가구총소득을 나눠준 값이다.

한편 노동패널자료는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개인의 사회계층 소속감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적 판단에 따른 중산층은 해당 변수를 이용하되, 가구 단위로 분류된 객관적 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가구주의 응답만을 사용한다. 사회계층 소속감에 관한 문항은 2차년도 이후 조사되고 있다.³⁾ 그러나 2차년도에는 4점 척도인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하층 ④ 하층으로 응답받던 것이 3차년도와 5차년도에는 5점 척도인 ① 상류층 ② 중상류층 ③ 중류층 ④ 중하류층 ⑤ 하류층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3차년도와 5차년도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구분하여 각각 질문하였다. 이후 8차년도 이후에는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척도는 6점으

2) 중산층의 정의에 대해서는 유경준(2008),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과 류상영·강석훈(1999),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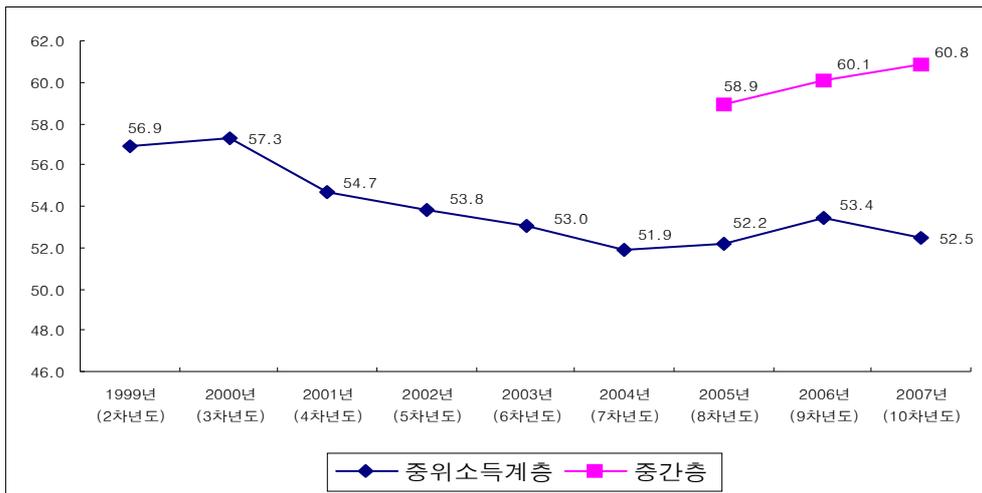
3) 관련문항이 조사된 차수는 2차, 3차, 5차, 8~10차년도이다.

로 ①상상 ②상하 ③중상 ④중하 ⑤하상 ⑥하하로 나누어 응답토록 하였다. 8차년도 이후 이와 같은 6점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주관적 판단을 묻는 문항의 경우 정중앙의 응답항목, 즉 예를 들면 ‘중중’에 응답자가 몰리는 응답 쏠림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처럼 설문 문항뿐 아니라 응답항목이 차수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8차년도 이후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8차년도 이후 가구주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한 문항을 기준으로 ③ 중상과 ④ 중하에 응답한 집단을 주관적 중산층이라고 정의하도록 한다.

한편 용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구소득에 따라 구분한 객관적 중산층의 경우에는 중위소득계층⁴⁾이라 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른 중산층의 경우에는 중간층⁵⁾이라는 용어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위소득계층은 1999년에 56.9%이던 것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2007년에는 52.5%까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간층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2007년에는 6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물론 중간층의 경우 이용

[그림 1] 중산층의 비중



- 4) 중위소득의 150% 이상 가구는 상위소득계층, 50% 미만 가구의 경우에는 하위소득계층이라 한다.
- 5) 해당 설문에 ①상상 ②상하에 응답한 경우는 상류층, ⑤하상 ⑥하하에 응답한 경우는 하류층이라 한다.
- 6) 중간층은 2차년도에는 76.1%, 3차년도와 5차년도에는 각각 75.8%와 8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5차년도 이전과 8차년도 이후 조사는 문항과 응답항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표 1>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 비중

(단위: %)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		
	하위소득계층	중위소득계층	상위소득계층	하류층	중간층	상류층
2005년(8차년도)	20.3	52.2	27.5	39.6	58.9	1.6
2006년(9차년도)	20.0	53.4	26.6	38.2	60.1	1.8
2007년(10차년도)	20.4	52.5	27.1	37.6	60.8	1.6

가능한 자료가 3개년도에 불과하므로, 향후 좀더 많은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어야 보다 명확하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중위소득계층에 속한 가구 비중에 비해 자신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표 1>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객관적 지표에 비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 즉 객관적 지표에 따르면 상위소득계층에 속한 가구의 비중이 10차년도 기준 27.1%로, 중위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하위소득계층과 상위소득계층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계층 분류에 따르면 자신이 상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채 2%도 되지 않아, 매우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자신이 사회경제적으로 하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10차년도 기준 37.6%에 달해 하위소득계층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지위보다도 자신이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Ⅲ. 객관적 지위 대 주관적 지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객관적인 지위와 주관적인 지위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는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지위간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10차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지위가 일치하는 비중은 45.8%이었으며, 주관적 지위가 객관적 지위에 비해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불과 5.3%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객관적 지위보다 낮은 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지위의 차이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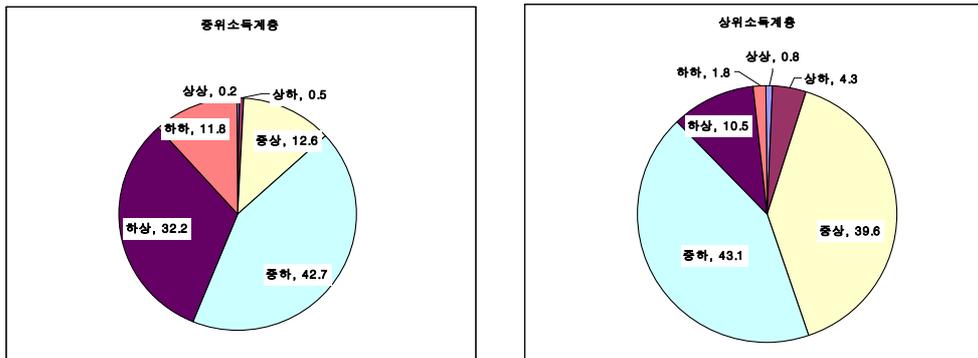
		주관적 지위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객관적 지위	하위소득계층	0 (0.0)	0 (0.0)	29 (0.63)	196 (4.3)	315 (6.9)	390 (8.5)
	중위소득계층	5 (0.0)	11 (0.2)	304 (6.6)	1,030 (22.4)	777 (16.9)	285 (6.2)
	상위소득계층	10 (0.2)	54 (1.2)	496 (10.8)	541 (11.8)	131 (2.9)	22 (0.5)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비중임.

또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위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계층에 비해 한 단계 낮은 ‘하상’ 계층에 응답한 비중이 3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물론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된 ‘중하’ 계층의 경우에도 객관적 지위를 좀더 세분하여 6구간으로 볼 경우 하향 응답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소득계층의 경우에는 두 단계 아래인 ‘중하’ 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3.1%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세 단계 아래인 ‘하상’ 계층에 속한다는 응답 또한 10.5%에 달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또 한 단계 아래인 ‘중상’에 속한다고 응답한 가구 또한 3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소득계층이 오히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하에서는 중위소득계층과 중간층의 특징을 통해 그 이유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림 2] 소득계층별 사회계층 소속감



7) <표 2>에서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쪽에 속한 집단의 비중이다.

IV. 중위소득계층의 특징

본 장에서는 중위소득계층, 즉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한 가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3>은 중위소득계층에 속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류층과 중간층에 속한 가구의 인적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중위소득계층에 속하면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관리직 종사자일수록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표 3> 주관적 지위별 중위소득계층 가구의 특성

(단위: 가구, %)

		주관적 지위 ¹⁾	
		하류층	중간층
연령별	20~29세	35 (3.3)	35 (2.6)
	30~39세	178 (16.8)	389 (29.2)
	40~49세	295 (27.8)	321 (24.1)
	50~59세	275 (25.9)	282 (21.1)
	60세 이상	279 (26.3)	307 (23.0)
학력별	고졸 미만	472 (44.5)	337 (25.3)
	고졸	438 (41.3)	511 (38.3)
	(전문)대졸 이하	68 (6.4)	194 (14.5)
	대졸	68 (6.4)	245 (18.4)
	대학원 이상	14 (1.3)	47 (3.5)
취업형태별	임금근로자	548 (68.9)	671 (63.3)
	비임금근로자	247 (31.1)	389 (36.7)
직종별	전문관리직	91 (11.5)	227 (21.5)
	사무직	52 (6.6)	122 (11.5)
	서비스직	125 (15.8)	183 (17.3)
	농림어업직	47 (5.9)	73 (6.9)
	생산직	478 (60.3)	452 (42.8)

주: 1) 중위소득계층에 속한 상류층 응답자는 16가구로서, 해석상 주위가 요구되므로 표에 제시하지 않음.

2) 괄호 안은 칼럼 백분율을 의미함.

3) (전문)대졸 이하는 전문대졸 이하와 4년제 대졸 미만을 의미.

연령별로는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하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가구주의 27.8%가 40대인데 반해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력별로는 하류층 응답자의 85% 이상이 고졸 이하인데 반해, 중간층 응답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이상 경험자의 비중이 3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하류층 응답자의 60.3%가 생산직이었던데 반해, 중간층의 경우 전문관리직이 21.5%, 사무직이 11.5%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는 가구소득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요소-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라든가 높은 학력, 동년배 사이에서의 상대적 위치 등-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가구소득 이외의 가구 경제상황 또한 주관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4>에 따르면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가구 중 68.0%가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9.3%만이 자가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하류층의 경우는 21.9%가 월세 생활자라고 응답했지만, 중간층의 경우 8.1%만이 월세로 산다고 응답했다. 주택의 시가에 있어서도 하류층의 경우는 1억 300만 원이었지만, 중간층의 경우는 평균 1억 8,432만 원으로 하류층에 비해 대략 1.8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주택 소유여부와 주택의 시가가 주관적 지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주택 종류별로는 아파트 소유주일수록 중간층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이 많을수록 중간층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5>는 중위소득계층의 자산과 평균 부채액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층의 경우 부동산 자산(거주하고 있는 자가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27.0%였으나, 하류층의 경우는 중간층의 절반정도 수준인 13.8%만이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시가에 있어서도 중간층은 1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68.2%였으며, 하류층은 41.4%에 그쳤다. 한편 중간층의 평균 금융자산은 2,277만 원으로 하류층 평균 금

<표 4> 주관적 지위별 중위소득계층의 주택 특성

(단위: 가구, %, 만 원)

		주관적 지위	
		하류층	중간층
입주형태별	자가	523 (49.3)	907 (68.0)
	전세	245 (23.1)	272 (20.4)
	월세	233 (21.9)	108 (8.1)
	기타	61 (5.7)	46 (3.5)
자가주택의 평균시가		10,300	18,432

주: 괄호 안은 칼럼 백분율을 의미함.

<표 5> 주관적 지위별 중위소득계층의 자산 및 부채

(단위: 가구, %, 만 원)

		주관적 지위	
		하류층	중간층
거주주택 외 부동산 소유비중		146 (13.8)	360 (27.0)
부동산 시가별	5천만 원 미만	24 (30.0)	28 (13.1)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23 (28.8)	40 (18.7)
	1억 이상 5억 미만	29 (36.3)	116 (54.2)
	5억 이상	4 (5.0)	30 (14.0)
평균 금융자산 총액		1,078.4	2,276.5
평균 부채 총액		3,901.2	5,227.7

주: 괄호 안은 칼럼 백분율을 의미함.

용자산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중간층의 경우에는 평균 부채액수도 하류층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중간층의 특징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중간층, 즉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묻는 문항에 ‘중상’ 혹은 ‘중하’라고 응답한 가구의 특성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 객관적 지표들 기준으로 할 때 하위소득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103가구, 상위소득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908가구 존재한다. 이들 가구의 인적특성을 살펴보면, 상위소득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하위소득계층에 속하는 경우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으며, 전문관리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로는 상위소득계층의 경우 28.5%가 40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30대가 27.1%, 50대가 26.8%이었다(표 6 참조). 반면 하위소득계층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62.7%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객관적인 지위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가구소득에는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가구주가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해서는 상위소득계층에 속하지만, 자신은 상류층이 아닌 중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학력과 직종에 있어서도 고학력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경우 근로소득이 높아 상위소득계층에 속하지만, 응답자 자신은 상류층이 아닌 중간층

<표 6> 객관적 지위별 중간층 가구주의 특성

(단위: 가구, %)

		객관적 지위		
		하위소득계층	중위소득계층	상위소득계층
연령별	20~29세	4 (1.8)	35 (2.6)	35 (3.4)
	30~39세	20 (8.9)	389 (29.2)	281 (27.1)
	40~49세	31 (13.8)	321 (24.1)	296 (28.5)
	50~59세	29 (12.9)	282 (21.1)	278 (26.8)
	60세 이상	141 (62.7)	307 (23.0)	147 (14.2)
학력별	고졸 미만	130 (57.8)	337 (25.3)	125 (12.1)
	고졸	50 (22.2)	511 (38.3)	330 (31.8)
	(전문)대졸 이하	20 (8.9)	194 (14.5)	152 (14.7)
	대졸	21 (9.3)	245 (18.4)	338 (32.6)
	대학원 이상	4 (1.8)	47 (3.5)	92 (8.9)
취업형태별	임금근로자	45 (43.7)	671 (63.3)	578 (63.6)
	비임금근로자	58 (56.3)	389 (36.7)	331 (36.4)
직종별	전문관리직	12 (11.7)	227 (21.5)	369 (40.6)
	사무직	5 (4.9)	122 (11.5)	131 (14.4)
	서비스직	19 (18.5)	183 (17.3)	134 (14.8)
	농림어업직	24 (23.3)	73 (6.9)	41 (4.5)
	생산직	43 (41.8)	452 (42.8)	233 (25.7)

주: 1) 괄호 안은 칼럼 백분율을 의미함.

2) (전문)대졸 이하는 전문대졸 이하와 4년제 대졸 미만을 의미.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거주주택의 입주형태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소득계층이라 하더라도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7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시가 또한 하위소득계층은 평균 1억 7119만원, 중위소득계층은 1억 8432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상위소득계층과의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제시된 <표 4>와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구분된 중위소득계층의 경우 응답자가 자가주택 소유주가 아닐 경우 하류층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반해, 실제로 가구소득이 작아 하위소득계층에 속하더라도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가주택 소유여부와 주택의 시가가 개인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7> 객관적 지위별 중간층의 주택 특성

(단위: 가구, %, 만 원)

		객관적 지위		
		하위소득계층	중위소득계층	상위소득계층
입주형태별	자가	163 (72.4)	907 (68.0)	746 (71.9)
	전세	35 (15.6)	272 (20.4)	208 (20.1)
	월세	14 (6.2)	108 (8.1)	56 (5.4)
	기타	13 (5.8)	46 (3.5)	27 (2.6)
자가주택의 평균시가		17,119	18,432	26,995

주: 1) 괄호 안은 칼럼 백분율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중간층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자산에 있어서도 객관적 지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경우가 33.3%로 오히려 중위소득계층에 비해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금융자산 액수 또한 하위소득계층은 2,294만 원으로 중위소득계층의 2,277만 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근로소득이 없어 가구총소득은 낮다 할지라도 가구 내 부동산 자산(거주주택 및 그 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응답자들은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객관적 지위별 중간층의 자산 및 부채

(단위: 가구, %, 만 원)

		객관적 지위		
		하위소득계층	중위소득계층	상위소득계층
거주주택외 부동산 소유비중		75 (33.3)	360 (27.0)	404 (39.0)
부동산 시가별	5천만 원 미만	8 (22.9)	28 (13.1)	26 (9.7)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6 (17.1)	40 (18.7)	30 (11.2)
	1억 이상 5억 미만	16 (45.1)	116 (54.2)	141 (52.6)
	5억 이상	5 (14.3)	30 (14.0)	71 (26.5)
평균 금융자산총액		2,293.6	2,276.5	4,883.0
평균 부채총액		7,093.6	5,227.7	11,178.1

주: 괄호 안은 칼럼 백분율을 의미함.

VI. 결론

지금까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지위와 주관적 판단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고는 객관적 지위의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사용했으며,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하는 집단을 중위소득계층으로 보았다. 한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중상’ 혹은 ‘중하’에 응답한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객관적인 중위소득계층과 주관적인 중간층 간에는 약간의 괴리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된 소속 계층이 일치하는 가구의 비중은 45.8%이었으며, 주관적 지위가 객관적 지위에 비해 높은 경우는 불과 5.3%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객관적 지위보다 주관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계층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우선 응답자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객관적 지위에 비해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객관적 지위로는 상위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은 27.1%에 달하지만, 자신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는 불과 1.6%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생각하는 경향은 오히려 중위소득계층보다 상위소득계층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두 지위간의 계층 불일치는 객관적 지위의 정의, 즉 가구소득만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방식에도 기인하고 있다. 본고는 중위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주관적 지위별 특징을 살펴본 후, 반대로 중간층에 속하는 가구의 객관적 지위별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객관적 지위의 정의에 대한 개선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다.

가구주가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해서는 상위소득계층에 속하지만, 자신은 상류층이 아닌 중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학력과 직종에 있어서도 고학력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경우 근로소득이 높아 상위소득계층에 속하지만, 응답자 자신은 상류층이 아닌 중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더해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계층에 속하지만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응답자는 하류층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반해, 실제로 가구소득은 작아 하위소득계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가주택

소유여부와 주택의 시가가 개인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근로소득이 없어 가구총소득은 낮다 할지라도 가구 내 부동산 자산(거주주택 및 그 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응답자들은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산 및 금융자산, 그리고 자신의 인적특성 - 학력, 연령, 직종 -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객관적 지위 또한 기존의 가구소득별 분류방식보다는 자기주택의 소유여부, 그 외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정서를 보다 잘 반영한 기준이라 할 것이다⁸⁾. **KLI**

<참고문헌>

- 남준우(2007),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노동정책연구』 7(4), 한국노동연구원.
 류상영·강석훈(1999),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유경준(2008),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

8) 불행히도 필자는 해당 자료를 찾지 못했으나, 류상영·강석훈(1999),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에 따르면, 경제기획원(1985), 『중간층 육성대책』과 한상진(1987), 『한국 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는 가구소득뿐 아니라 학력, 직업, 주택변수 등을 고려하여 중산층을 정의했으며, 현대경제사회연구원(1998)의 자료는 이외에도 자가용 보유여부와 문화생활 등을 포함한 정의를 사용했다고 한다.